

타협 없이 선긋기

1 찬양과 기도

- 찬송 : 새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

- 1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 2 스룹바벨과 가문의 우두머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돕겠소. 당신들처럼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이오. 우리도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앗시리아 왕 에살하돈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왔으니 말이오."
- 3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소. 우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오직 우리끼리 여호와를 위해 그 집을 지을 것이오."
- 4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주어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5 그들은 또 참모들을 고용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절 내내, 심지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까지 그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 상소문을 올리는 대적들

- 6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초기에 그 땅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 대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 7 또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 미드르닷,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은 아람 말로 쓰였다가 그 후 번역됐습니다.
- 8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새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주민을 고소하는 편지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 9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다른 동료들, 곧 재판장, 총독, 관리, 비서관들과 그 밖의 다른 나라 사람들 디나와 아바삿과 다블래와 아바새와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과 데해와 엘람 사람과
- 10 귀족 오스납발이 추방시켜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 강 건너 지역에 정착시킨 사람들이 편지를 올립니다.

3 묵상하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란(1절)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방 민족들과 섞인 혼혈인이었고, 하나님과 동시에 여러 우상을 섬기던 다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돕겠다고 찾아온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3절). 제안을 받아들이면 성전을 손쉽게 지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백성의 정체성과 순수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우려 한 것은 사실 유다 백성의 세력이 커질까 두려워 방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솔깃한 유혹으로 타협하게 하고, 집요한 공격으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잘 분별하고 진리가 아니라면 섞이지 않도록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4 적용하기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나의 마음을 흔들고 약해지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이러다 잘못되면 어쩌지”, “할만큼 했으니 됐어”,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말들로 속삭이는 영적 공격들을 나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영적 공격들 앞에서 오늘도 타협 없이 선을 긋기를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애매하고 교묘하게 파고들어 나의 믿음을 약해지게 하고 현실과 타협하게 만드는 말이나 그런 생각(가치관)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 ② 위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 이제부터 타협 없이 선을 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지킬 것을 지키며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큐티하기 전 기도

- 찬송 : 새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1 2 3

- 1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 2 스룹바벨과 가문의 우두머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돕겠소. 당신들처럼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이요. 우리도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앗시리아 왕 에살하돈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왔으니 말이오."
- 3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소. 우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오직 우리끼리 여호와를 위해 그 집을 지을 것이요."
- 4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주어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5 그들은 또 참모들을 고용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절 내내, 심지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까지 그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 궁굼 사전

- *대적: 내 편과 맞서는 적
- *참모:윗사람을 도와 어떤 일을 꾸미는 사람
- *고용: 돈을 주고 사람에게 일을 시킴

• 말씀 씨앗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은 대적들이 찾아와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겁을 주며 성전 건축을 방해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 내야 해요.

3 말씀새싹 -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하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뭐라고 답했나요? 빈칸에 적어 보세요.



○ 끼리 ○ 를 위해 그 집을 지을 것이요.

4 말씀 열매 -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골라 V표 하세요.

- | | |
|---|--|
| ☐ 나에게 이익이 되면 무조건 따라요 | ☐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
| ☐ 망설이다가 유혹에 넘어가요 | ☐ 용기 있게 “안 돼!”라고 거절해요 |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방해로 받아도 성전 건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5 기도하기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